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들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김 태 원[†] 육 성 필[‡]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 외상 경험이 있는 여성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20~50대 여성 289명을 대상으로 사건 관련 반추 척도(ERRI), 지각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MSPSS),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도적 반추가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과 의의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외상, 외상 후 성장, 반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2024)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김태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 교신저자: 육성필,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03136)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54

Tel: 02-6964-7030, Email: ysp62@hanmail.net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1년 국내 폭력 상담 86만 건의 유형 중 에서 가정폭력은 59.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28.9%)과 성매매(8.7%) 순이었다. 폭력 상담은 2020년과 대비하여 불 때 9.7%가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검거 인원 역시 약 5만 4천 명으로 2020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경찰청, 2022). 가정폭력은 행위의 가해와 피해 대상에 따라 부부폭력, 자녀폭력(아동학대), 형제간 폭력, 부모폭력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성폭력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체적 상해를 동반한 폭력의 경우에는 통증과 함께 감각적으로 기억되며(van der Kolk, 1996), 원초적으로 힘에 지배당하고, 굴복하게 되는 경험으로 인해 자의식과 관련된 수치감, 자기 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쳐, 자기 인식 및 정신건강 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안현외 외, 2012; Andrews et al., 2000; Beck et al., 2011; Freed & Andrea, 2015).

지금까지 대다수의 외상관련 연구들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병리적인 증상들을 주로 보고하며 이를 질환으로서만 정의하는 병리적인 모델만을 강조하였다(Brewin & Holmes, 2003). 하지만 Calhoun과 Tedeschi (1999)는 외상을 겪고 있는 인간의 반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상 이후의 부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외상경험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증상 및 외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기존의 치료 목표를 넘어서 외상 이후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내적인 가치를 발견하여 성장에 대한 개인의 지향성을 지지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Joseph, Williams, &

Yule, 1993). 최근의 연구자들은 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리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상 이전보다 더 나은 기능 및 적응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김지경, 장현아, 2014). 이러한 외상 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사건에 대처하여 성장, 그리고 성숙이라는 긍정적인 상태로의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정의한다(Tedeschi & Calhoun, 1995). 여기서의 성장이란 단순히 외상 이전에 가지고 있는 기능수준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던 이전의 적응수준이나 심리적인 기능수준, 그리고 삶의 자각수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Maercker & Zoellner, 2004).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사람들의 외상에 대한 관점은 외상을 겪은 후에 고통을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과 성숙의 긍정적 변화에 대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외상 후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이상옥 외, 2021).

국내에서 가정폭력을 벗어난 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을 다루는 연구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폭력관계에 머물던 시기 또한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지만, 성장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다양한 매개, 조절변인 중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s)를 초점으로 삼았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국내 연구(유성경, 박성호, 2002; 이영순, 김은정, 천성문, 2009)에 따르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과 영향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 경우 스트레스에 대해 잘 이겨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Cohen et al., 1985) 실제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Eagle et al., 2019; McDowell & Serovich, 2007; Prati & Pietrantonio, 2010).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는 객관적 사회적 지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만이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도적 반추에 있어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연구설계를 통해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의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더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반추, 외상 후 성장, 지각된 사회적지지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반추는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하며 지속시키는 부정적인 인지의 특성으로 여겨져 왔다(Nolen-Hoeksema, 1991). 이러한 부적 정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Calhoun과 Tedeschi(2006)는 위기에 따르는 반추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안한다.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는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고로 규정되어 왔다. 반면에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는 반성(reflection)과 같이 사건을 이해하는 측면에 중점을 둔 반복적이며 목적성이 있는 사고이

다.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성장적 반추 혹은 성장적 숙고 등으로 불리며, 외상 후 성장과도 많은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하진외, 2013). 각각의 반추는 외상 이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져 왔다. 예컨대, 침습적인 반추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지속적이고 높은 강도의 고통,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대처로부터의 실패와 관련되는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서 강력한 예언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ann et al., 201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외상의 ‘부정적 변화’라면, 외상 후 성장은 외상에 대한 투쟁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이다. 외상 후 성장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저항을 넘어서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외상이 전의 적응수준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수준을 넘는 질적 변화도 포함한다(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의 영향에 대한 ‘처리’와 ‘결과’ 그 둘 모두이며 외상에 대처하는 개인의 인지적인 처리의 과정으로부터 발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지 및 정서적인 이득을 통해 성장을 얻어내는 것이다(Tedeschi, Park, & Calhoun, 1998). 외상 후 성장은 자기 자신의 지각의 변화,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삶의 철학의 변화라는 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Tedeschi & Calhoun, 1996). 첫 번째는 자기와 세상에 대한 관점의 긍정적인 변화로서 외상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제한성과 취약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진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변화의 영역으로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호관계 속에서의 존재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이다(Calhoun & Tedeschi, 1999). 즉, 외상 사건 이전보다 더욱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노출하고 공감적인 이해와 위로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삶에 대한 영적이고 철학적인 변화로서, 외상 경험이 개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나 존재관 등의 핵심 신념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삶과 인생,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는 계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여러 변화들을 다루고, 사건의 여파와 투쟁하면서 이로 인해 그들의 괴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과 향상된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Calhoun, Cann, & Tedeschi, 2010).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개인이 실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믿음이다. 즉, 필요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타인으로부터 수용, 존중, 사랑받고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성질에 더 크게 의존한다(Cobb, 1976). 개인이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어도 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찾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에게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

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Sarason 등(2001)은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객관적 사회적 지지가 아닌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서,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의도적 반추를 경유하여, 이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Calhoun과 Tedeschi(2006) 모델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은 정서적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전환하거나 반추를 중단하기 보단,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신념과 목표를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침습적 반추가 강할수록 인지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동기가 생겨서 의도적 반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상 후 증상이 심각할 때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하며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개인은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말한다(박혜원, 2006). 의도적 반추는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들과 더불어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다(신선영, 2009). 의도적 반추의 수준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전유진, 2009). 의도적 반추는 외상 경험자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때 메타 인지를 활성화시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다고 하였다 (김진수, 서수균, 2011).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의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의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의도적 반추가 매개할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와 그것에 대한 만족은 외상 후 성장의 보고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Park, 1996). 즉 좋은 사회적 자원을 지니고 있으면 성장을 경험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상 당시에 받았던 자신의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면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신선영, 정남운, 2012). 개인이 지각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상실경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개인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등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Michael & Cooper, 2013), 외상 후 성장에 요구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Park et al., 1996).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을 직접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외상 당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수준과 외상 후 성장 수준은 정적인 관계

에 보였다. 좋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성장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 외상 당시에 받은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 하면,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신선영, 2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 작용과 정적인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다수는 비교적 일관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전유진, 배정규, 2013), 자신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이경림, 박재국, 2007),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낮은 생활 만족도를 보고하였다(전진순, 2001).

이상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가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것이다.

방 법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4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터넷 리서치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가정폭력을 경험한 20~50대 여성 292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가정에서 신체적 폭행, 언어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권에 대한 위협,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이다. 그 결과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회수된 292부 중 동일인의 중복 참여가 의심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성실하지 못한 응답의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289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 K-ERRI는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등 (2013)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K-ERRI는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주요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발생하는 인지적인 과정인 반추를 측정하는 2가지 반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는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 10문항),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 자꾸 생각하곤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 10문항), “나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 방식의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자주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침습적 반추 .93,

의도적 반추 .8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PTGI는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이다. K-PTGI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5문항)와, 자기지각의 변화(6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2문항),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은 6점 리커트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외상 경험 이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경험하지 못함)~6점(많이 경험함)의 6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자기지각의 변화 .91, 대인관계 깊이 증가 .87,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66,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64, 전체 .92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지각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 MSPSS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Dahlem, Zime과 Farley(1988)가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국내 현황에 맞춰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12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그리

고 주요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정말 그렇다’)로 평정되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가족의 지지 .90, 친구의 지지 .91, 주요 타인의 지지 .90, 전체 .9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성 및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도적 반추가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7.0과 Macro 4.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위해 부트스트래핑(2,000회)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료로 부터 2,000개의 가상 표본을 복원추출 하여 편향이 교정된 95%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외상 경험 여성의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Macro 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 하였다.

결 과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 분포는 20대(22~29세)는 15명(5.2%), 30대(30~39세)는 86명(29.8%), 40대(40~49세)는 101명(34.9%), 50대 이상은 87명(30.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직업은 사무직 139명(48.1%), 단순 노무직 9명(3.1%), 서비스직 30명(10.4%), 전문직 24명(8.3%), 자영업 8명(2.8%), 무직 76명(26.3%), 기타 3명(1.0%)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침습적 반추, 의도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 (N=289)

구분	빈도(N)	비율(%)	
연령	20대	15	5.2
	30대	86	29.8
	40대	101	34.9
	50대 이상	87	30.1
	합계	289	1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	17.6
	대학교 졸업	229	79.2
	대학원 졸업	9	3.1
	합계	289	100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 (N=289) (계속)

구분	구분	빈도(N)	비율(%)
결혼상태	결혼	268	92.7
	이혼	16	5.6
	별거	5	1.7
	합계	289	100
가구 유형	부부끼리 거주	59	20.4
	자녀와 함께 거주	194	67.2
	부모 및 자녀와 함께 거주	28	9.7
	기타	8	2.7
	합계	289	100
직업군	무직	76	26.3
	단순 노무직	9	3.1
	자영업	8	2.8
	사무직	139	48.1
	서비스직	30	10.4
	전문직	24	8.3
	기타	3	1.0
	합계	289	100
경제적 상태	어려운 편	94	32.5
	보통	155	53.6
	넉넉한 편	40	13.9
	합계	289	1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54	18.7
	보통	159	55.0
	건강한 편	76	26.3
	합계	289	100

적 반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의 일반적 경향성 및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 보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는 가족의 지지 3.67, 친구의 지지 3.30, 주요 타인의 지지 3.69

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에서는 자가지각의 변화 2.80, 대인관계 깊이 증가 3.43,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2.92,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2.03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왜도 범위는 -.74~.27, 첨도 범위는 -.75~.56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289)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침습적 반추	1.58	.58	0	3.00	.01	.09
의도적 반추	1.46	.49	0	2.90	.08	.27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5	.78	1.00	5.00	-.62	.53
가족의 지지	3.67	.88	1.00	5.00	-.74	.54
친구의 지지	3.30	.90	1.00	5.00	-.48	.15
주요 타인의 지지	3.69	.85	1.00	5.00	-.72	.56
외상 후 성장	2.66	.82	0.69	4.56	-.34	-.25
자기지각의 변화	2.86	.97	0	5.00	-.74	.17
대인관계 깊이 증가	2.51	.99	0	4.60	-.54	.03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2.92	.80	1.00	5.00	.01	-.34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2.03	1.36	0	5.00	.27	-.75

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임을 알 수 있었다(Kline, 2005). 좀 더 자세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r=.13, p<.05$)와 정적상관이 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r=-.47, p<.001$), 외상 후 성장($r=-.56, p<.001$)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r=.12, p<.05$), 외상 후 성장($r=.24, p<.001$)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r=.58, p<.0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이다.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 4,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직접효과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B=.12, CI:.02\sim.2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상 후 성장($B=-.86, CI:-.99\sim-.73$)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B=.54, CI:.39\sim.69$)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를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6, CI:.01\sim.11$). 즉,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므로 의도적 반추는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 효과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침습적 반추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B=-.79, CI:-.93\sim-.66$).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289)

	1	2	3	3-1	3-2	3-3	4	4-1	4-2	4-3
1.침습적 반추	1									
2.의도적 반추	.13*	1								
3.지각된 사회적 지지	-.47***	.12*	1							
3-1.가족의 지지	-.39***	.14*	.89***	1						
3-2.친구의 지지	-.43***	.07	.86***	.59***	1					
3-3.주요 타인의 지지	-.44***	.11	.93***	.81***	.70***	1				
4.외상 후 성장	-.56***	.24***	.58***	.52***	.50***	.52***	1			
4-1.자기지각의 변화	-.58***	.23***	.57***	.54***	.44***	.54***	.92***	1		
4-2.대인관계 깊이 증가	-.53***	.15*	.60***	.49***	.59***	.52***	.88***	.75***	1	
4-3.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5***	.24***	.38***	.37***	.29***	.36***	.75***	.66***	.51***	1
4-4.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19**	.21***	.16**	.12*	.18**	.12*	.60***	.39***	.40***	.4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Path	B	SE	p	95% CI	
				LLCI	ULCI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12	.05	.022	.02	.21
직접효과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86	.07	.000	-.99	-.73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54	.08	.000	.39	.69
간접효과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6	.03	-	.01	.11
총효과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79	.07	-	-.93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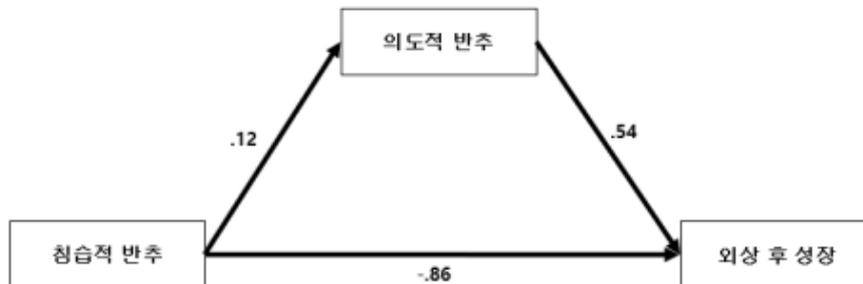


그림 1.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모형

(2,000회)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이는 기존의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인과적 매개효과 검증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한 분석방법이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후 매개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확인하므로 계수가 조금만 감소해도 유의성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매개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방식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원자료에서 샘플을 무

작위로 여러 번 표집하여 분포를 생성하고 추정치의 분포와 신뢰구간을 제시한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 추정치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의도적 반추(B=.40, CI:.24~.56), 지각된 사회적 지지(B=.55, CI:.45~.64)는 외상

표 5.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Variable	B	SE	95% CI		F	R ²
			LLCI	ULCI		
의도적 반추(X)	.40	.08	.24	.56		
지각된 사회적 지지(M)	.55	.05	.45	.64	62.89***	.398
X x M	-.40	.10	-.59	-.21		

*** p<.001



그림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도적 반추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도적 반추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40$, $CI: -.59 \sim -.21$)도 외상 후 성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평균으로부터 ± 1 표준편차 값을 갖는 지점에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의도적 반추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외상 경험이 있는 여성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엄미선과 조성호(2016)의 연구, 취업 여성의 침습적 반추가 높을수

록 의도적 반추가 높아짐을 확인한 김은하와 김보라(2018)의 연구를 지지한다.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외상 사건이 발생한 후 초기에는 침습적 반추가 나타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Tedeschi & Calhoun, 2004).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의미를 형성하는 의도적 반추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는 침습적 반추를 자주 경험할수록 의도적 반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인지 과정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엄미선, 조성호, 2016). 그리고 의도적 반추가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고,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를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침습적 반추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가 높아짐을 확인한 엄미선과 조성호(2016)의 연구,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지애, 이동귀, 2012; Bower et al., 1998; Taylor, 1983; Tedeschi, 1999), 외상 당시 침습적 반추와 최근 2주 간의 침습적 반추로 구분하였을 때, 현재의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더욱 더디게 하는 변인임을 밝힌 Calhoun과 Tedeschi(2000)의 연구, 주의 분산 방략과 사회적 통제 방략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이중매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콰아툼(2015)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인 의도적 반추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습적 반추가 간접적으로는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 반추는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여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신선영, 2009). 침습적 반추가 긍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외상 후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여성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상자가 침습적 반추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의도적 반추로의 진행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은 별다른 관련이 없었으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위기상황에서 인지적 해석을 도와 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을 보고한 Thoits(1996)의 연구, 외상 경험 당시에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남을 확인한 신선영과 정남운(2012)의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선정, 2015; 유희정, 2015; 이동훈 등, 2016)와 일치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인지적인 처리를 활성화하여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Weiss, 2002). 또한 지각

된 사회적 지지는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외상 후 성장까지 이어지게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체만으로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침습적 반추는 지양되어야 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고려한 의도적 반추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의도적 반추를 높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데, 침습적 반추로 부터 벗어나 의도적 반추에서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Tedeschi & McNally, 2011).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 사건으로부터 비롯한 내담자의 주관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성장과 회복에 이르는 데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양상을 검증하여 성장을 다루는 상담의 치료적 개입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이들의 심리적 무력감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성장을 위한 의도적 반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

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은 별다른 관련이 없었으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상담 개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사회적 지지의 개입 여부가 중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외상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기존의 신념이 무너지며, 삶의 목표나 정체성 인식에 혼란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 고통이 유발된다(Chemtob & Carson, 2004).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핵심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습적 반추는 외상 경험 직후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사고나 심상이 반복적으로 마음에 침투하는 것으로 외상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의 증가와 관련이 깊으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을 지속시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예측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Calhoun et al., 2000). 시간의 경과에 의해 침습적 반추가 약화 되어 의도적 반추 양식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침습적 반추의 여파로 불안정할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의도적 반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별다른 조건 없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의도적 반추의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변인들의 고려가 핵심적일 수 있으며, 향후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의 측정에 있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간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정한 한 시점에 회고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여부를 묻는 설문지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시점과 지속된 기간에 대한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간별 접근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길 기대한다. 또한 연구대상을 최근 10년 동안 1회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여성으로 선정하였으나 가정폭력의 빈도 및 강도 그리고 가정폭력의 유형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하여 조사했다는 점에서 폭력의 차이 및 성장에 대한 촉진 요인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폭력의 빈도 및 강도 그리고 유형을 분류하고, 폭력의 유형에 따라 고르게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내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전체의 결과로 일반

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층화표집법이나 군집표집법 등의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활용한 양적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응답자의 반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면접법 등과 같은 질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용한다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더욱 면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횡단자료이다.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성장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집단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임상집단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임상집단은 일반집단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고,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2022)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서별 살인 및 폭력 최종 피해자 성별 및 연령대별 현황

곽아름 (2015).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동일, 이윤희, 김경은, 안지영 (2015). 재난대응 정신건강, 위기상담 가이드라인의 분석: 트라우마 개입의 중다 지침을 위한 서설. *상담학연구*, 16(3), 473-494.

김은하, 김보라 (2018).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추 하위유형의 매개효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335-354.

김지경, 장현아 (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김창대 (2019). 신경과학적 관점의 정서조절 연구 동향-상담 및 심리치료에 제공하는 시사점. *상담학연구*, 20(3), 1-51.

박선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0), 71-94.

박혜원 (2006). 외상 후 증상, 영성성 및 성장적 숙고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리라, 이민아 (2016).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인구학*, 39(2), 1-24.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

- 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안현의, 박철욱, 주혜선 (2012). 외상관련 정서의 확장: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39-854.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 (K-ERRI) 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가족폭력 실태조사.
- 유성경, 박성호 (2002).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89-400.
- 유희정 (2015). 사별 경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2), 323-339.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9(1), 289-308.
- 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대학생의 대인외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상경험 관련 변인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0(2), 95-117.
- 이상옥, 김수진, 손은령, 김하늬, 이재성, MIN QIAO 민교 (2021).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국내 KCI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2(1), 235-261.
- 이영순, 김은정, 천성문 (2009). 청소년동반자의 자기효능감, 직무환경,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8(2), 179-195.
- 전병주, 곽현주, 이경주 (2019). 치매노인 가족 보호자의 외상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성격별 보호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598-608.
- 전유진 (2009).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변혁적 리더쉽과 교사 임파워먼트가 교직원신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유진, 배정규 (2013).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4(2), 215-228.
- 전진순 (2001).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진의 (2013).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4, 175-209.
- Andrews, B., Brewin, C. R., Rose, S., & Kirk, M. (2000).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69-7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J. G., McNiff, J., Clapp, J. D., Olsen, S. A., Avery, M. L., & Hagewood, J. H. (2011). Exploring negative emotion in women

-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Shame, guilt, and PTSD. *Behavior therapy*, 42(4), 740-750.
- Bower, G. H., & Sivers, H. (1998). Cognitive impact of traumatic ev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4), 625-653.
- Boyle, G. J. (1995).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some psychometric limitations. *Australian Psychologist*, 30(1), 71-74.
- Brewin, C. R., & Holmes, E. A. (2003). Psychological theori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339-376.
- Brewin, C. R., Andrews, B., Valentine, J. D.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68, 748-766.
- Calhoun, L. G., &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3(3), 521-527.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3-23). Mah wah, NJ: Erlbaum.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Wills,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Eagle, D. E., Hybels, C. F., & Proeschold-Bell, R. J. (2019). Perceived social support, received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cler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7), 2055-2073.
- Freed, S., & D'Andrea, W. (2015). Autonomic arousal and emotion in victims of interpersonal violence: Shame proneness but not anxiety predicts vagal tone.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6(4), 367-383.
- Joseph, S., Williams, R., & Yule, W. (1993). Changes in outlook following disaster: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271-279.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Lyubomirsky, S., Tucker, K. L., Caldwell, N. D., & Berg, K. (1999). Why ruminators are poor problem solvers: clues from the phenomenology of dysphoric rumina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41.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 41-48.
- McDowell, T. L., & Serovich, J. M. (2007). The effect of perceived and actual social support on the mental health of HIV-positive persons. *AIDS care*, 19(10), 1223-1229.
- Michael, C., & Cooper, M. (2013).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28(4), 18-33.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Prati, G., & Pietrantonio, L. (2010). The relation of perceived and received social support to mental health among first responder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3), 403-417.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arason, A. B., Pierce, G. R., She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r, L. (200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Tedeschi, R. G. (1999). Violence transformed: Posttraumatic growth in survivors and their societ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3), 319-341.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McNally, R. J. (2011). Can we facilitate posttraumatic growth in combat veterans? *The American Psychologist*, 66(1), 19.
- Tedeschi, R. G., Park, C. L., & Calhoun, L. G. (Eds.). (1998).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Routledge.
- Terr, L.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Thoits, P. A. (1996). Managing the emotions of others. *Symbolic Interaction*, 19(2), 85-109.
- Van der Kolk, B. A., McFarlane, A. C., & Weisæth, L. (Eds.). (1996).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Guilford Press.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1차원고접수 : 2024. 10. 29.

심사통과접수 : 2024. 11. 26.

최종원고접수 : 2024. 12. 30.

The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women who have experienced trauma from domestic violence

Tae-Won Kim Sung-pil Yook

Seoul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a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women with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trauma.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among married or divorced women aged between 20 and 50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vasive rumin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liberate rumination. Second, deliberate ru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a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ird, perceive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counseling that address growth, by verifying the influence and patterns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y als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orms of social support interventions for the post-traumatic growth of these women.

Key words :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rauma, Post-traumatic growth, Rumina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